

마음 다루기 탄트라, 더없는 깨달음

## 무한의 개화(開花)

| 오쇼 | 손민규 옮김 |

그 어디에도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늘을 보기, 거기서 무한의 개화를 발견합니다(편  
집자 주).



하늘을 응시하면서 무(無)를 보라.

주의 깊게 마음을 관찰하라.

그러면 온갖 차별이 무너지고

깨달음에 도달하리라.

하늘을 응시하면서 무(無)를 보아라. 이것이 탄트라외의 방편이다. 허공을 들여다보는 것, 하늘을 보는 것, 봄 없이 보는 것, 텅 빈 눈으로 보는 것... 어떤 대상을 보지 말고 그저 보라. 텅 빈 눈이 되어라.

간혹 우리는 미친 사람의 눈에서 텅 빈 진공을 본다. 미친 사람과 깨달은 사람은 어떤 면에서 유사하다. 미친 사람은 그대의 얼굴을 보는 것 같지만 그대를 보고 있지 않다. 그는 투명한 유리 너머로 보듯이 그대를 통해서 본다. 그는 그대를 보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그저 하나의 통로일 뿐이다. 그에게 있어서 그대는 투명한 창문이다. 그는 그대를 통해서 그대 너머의 것을 본다. 그는 그대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본다. 그는 어떤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본다.

특정한 대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저 하늘을 보라. 대상에 초점을 맞추면 구름이 보일 것이다. ‘대상(something)’은 구름을 의미하지만 ‘무(nothing)’는 광대한 하늘을 뜻한다. 대상을 보지 말라. 대상에 초점을 맞추면 그 초점 자체가 대상을 만들어 낸다. 구름이 흘러갈 때 그대는 구름을 본다. 그러나 구름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거기에 구름이 있다 해도 구름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그저 보라. 구름이 흘러가게 놔두라. 그러면 돌연 이 ‘봄 없는 봄(look of not-looking)’과 동조되는 순간이 온다. 구름이 사라지고 오직 광대한 하늘만 남는다.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대의 눈이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갓난아기를 관찰해 보라. 그는 깨달은 사람, 또는 미친 사람과 똑같

은 눈을 갖고 있다. 그의 눈은 느슨하게 풀려서 흘러 다닌다. 그는 중앙에 두 눈을 모을 수 있다. 또한 그는 두 눈을 완전히 가장자리로 보낼 수도 있다. 그의 눈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의 몸, 그의 신경 계통이 아직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모든 것이 유동적이다. 그러므로 아기는 어떤 대상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본다. 그의 눈은 미친 사람의 눈과 같다. 아기를 관찰해 보라. 그대에게도 똑같은 눈이 필요하다. 그대는 다시 아기가 되어야 한다.

미친 사람을 살펴보자. 미친 사람은 사회에서 떨어져 나왔다. 사회는 고정된 세계를 의미한다. 사회는 고정된 규칙을 갖고 있다. 그런데 미친 사람은 고정된 규칙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미쳤다고 부르는 것이다. 그는 사회에서 완전히 이탈했다. 깨달은 사람 또한 다른 차원에서 사회를 완전히 이탈했다. 그는 미치지 않았다. 사실, 깨달은 사람이야말로 유일하게 정상적인 사람이다. 세상 전체가 미친 상태에 고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이 미친 것처럼 보인다. 미친 사람을 관찰하라. 그대에게도 미친 사람과 같은 눈이 필요하다.

고대 티벳의 수행 단체에는 항상 미친 사람이 있었다. 구도자들이 그의 눈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미친 사람을 찾아다녔다. 미친 사람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다. 미친 사람이 없으면 수도원이 존재할 수도 없었다. 미친 사람이 관찰의 대상이었다. 구도자들은 미친 사람과 그의 눈을 관찰하고, 것처럼 세상을 보려고 노력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시대였다.

서양에서는 미친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 동양에서 미친 사람은 무엇인가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다. 사회 전체가 그를 돌보고 존중했다. 미친 사람은 깨달은 사람과 같은 요소, 어린아이와 같은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소위

사회, 문명, 문화라고 불리는 것과 다르다. 그는 그런 것들로부터 이탈했다. 물론 그는 아래로 추락함으로써 이탈했다. 깨달은 사람이 위로 상승함으로써 이탈했다면 미친 사람은 아래로 추락함으로써 이탈했다. 이것이 다른 점이다. 그러나 이탈했다는 점에서는 둘이 똑같다. 그들은 유사한 점이 있다. 미친 사람을 관찰하라. 그리고 초점을 맞추지 않고 보려고 노력하라.

몇 달 전에,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이 어떤 실험을 했다. 그 실험 결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이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세상을 본다. 우리는 무엇인가 투영한다.

태평양의 작은 섬에 처음으로 큰 배가 상륙했을 때의 일이다. 섬의 원주민들은 그 배를 볼 수 없었다. 아무도 그 배를 보지 못했다. 그 배는 아주 큰 배였다. 그런데 그들의 눈은 작은 보트를 보는 것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큰 배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큰 배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런 배를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은 이 거대한 배를 인식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이 큰 배를 거부해 버린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은 한 젊은이를 실험했다. 그들은 이 젊은이에게 왜율(歪率)이 심한 안경을 주고, 일주일 동안 착용토록 했다. 처음 3일 동안은 참으로 고통스러웠다. 모든 것이 일그러져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고, 밤에 잠을 잘 수도 없었다. 눈을 감아도 그 일그러진 형상들이 나타났다. 얼굴도 일그러지고, 나무도 일그러지고, 길도 일그러지고... 그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다. 눈

앞에 보이는 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안경을 통해 나타나는 왜곡 현상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3일이 지나자 그는 이 안경에 익숙해졌고, 왜곡 현상이 사라졌다. 안경은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그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 1주일이나 지나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두통도 없고 일그러진 형상도 없었다. 과학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눈은 마치 더 이상 안경이 없는 것처럼 보고 있었다. 물론, 안경은 여전히 그의 눈앞을 가리고 모든 것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눈은 안경을 쓰기 전에 훈련받은 방식대로 세상을 보고 있었다.

그대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것이 실재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것은 실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대의 눈에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대는 색깔을 보고 형상을 본다. 모든 것이 그대의 문에 비춰진 것이다. 기존의 패턴에 따라 고정된 시각을 갖고 있으면 그대는 모든 것을 그 패턴에 따라서 본다. 그러나 미친 사람은 유동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대상이 없는 시각, 보는 동시에 보지 않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 시각은 아름답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탄트라 기법 중의 하나다.

하늘을 응시하면서 무(無)를 보라.

대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저 보라. 처음 며칠 동안은 자꾸 어떤 대상을 보게 될 것이다. 기존의 습관 때문이다. 우리는 기존의 습관에 따라 보고 듣는다. 우리는 습관에 따라 사물을 이해한다.

구제프의 수제자 중 한 명인 우스펜스키(P.D. Ouspensky)는 자신

의 제자들에게 특정한 원칙을 고집했으며, 모든 사람이 이에 대해 성을 내곤 했다. 이 원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다. 어떤 사람이 와서 “어제 당신이 말씀하신 바로는…” 하고 말하면 오스펜스키는 즉각 그의 말을 중단시키고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저는 어제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라고 말하라. 내가 무엇을 말했는지 그대는 모른다. 그대가 들은 바를 말하라!”

그가 이토록 강력하게 주장한 것은 우리가 너무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에 의하면…” 하고 말한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저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이해합니다’라고 말하라.”

사람들이 말 한 마디를 꺼낼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항상 잊지 말라. 그것은 그대가 이해한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잊는다. 그의 제자들 또한 계속해서 잊었으며, 날마다 그는 이 원칙을 완고하게 고수했다. 그는 그대가 말을 이어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처음부터 다시 말하라. ‘저는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한 내용입니다’라고 말하라.”

그대는 자신의 패턴에 따라 보고 듣는다. 그대는 고정된 패턴을 갖고 있다. 이 패턴을 버려야 한다. 존재계를 알기 위해서는 고정된 패턴 전부를 버려야 한다. 그대의 눈은 마음의 영사기(映寫機)가 아니라 투명한 창문이 되어야 한다. 그대의 귀는 그저 하나의 문이 되어야 한다. 아무것도 투영하지 말아야 한다.

구제프와 함께 연구를 하던 심리학자가 있었다. 그는 결혼식장에서

눈과 귀가 순수하고 투명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라. 그대의 감각 전부가 명쾌해야 한다. 순수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 존재계가 그대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존재계를 알 때 그대는 자신이 붓다이고 신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된다.

간단하면서도 멋진 실험을 했다. 그는 한 에 비켜서서 사람들을 관찰했다. 많은 하객들이 지나가며 주최측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부유한 인사의 결혼식이었고, 하객이 줄을 이었다. 그런데 그가 지켜보니 주최측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객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듣지 않고 있는 것 같았다. 그가 하객들의 틈에 끼어 첫 번째 주최측 인사에게 점잖게 말을 건넸다.

“제 할머니님이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것 참 잘됐군요.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 다음 인사에게 똑같은 말을 하자 “정말 잘된 일이군요.” 하는 응답이 돌아왔다. 다음으로 신랑에게 똑같은 말을 건네자 신랑이 말했다.

“축하합니다. 이젠 어르신네도 뒤따라 갈 때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대는 자신이 기대하는 것만 듣는다. 기대가 그대의 안경이다. 그대는 이 안경을 통해 모든 것을 본다. 그대의 눈은 투명한 창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탄트라 기법이다.

특정한 대상이 들어오면 구름이 그대의 눈을 가린다. 이때 그대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보게 된다. 미묘한 환시(幻視)작용이 일어난다. 눈과 귀가 순수하고 투명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라. 그대의 감각 전부가 명쾌해야 한다. 순수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 존재계가 그대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존재계를 알 때 그대는 자신이 붓다이고 신이라

는 것 또한 알게 된다. 존재계의 모든 것이 신성하기 때문이다.

하늘을 응시하면서 무(無)를 보라.

주의 깊게 마음을 관찰하라.

먼저, 하늘을 응시하라. 바닥에 누워 하늘을 쳐다보라. 아무것에도 초점을 맞추지 말라. 처음에는 계속 실패할 것이다. 자꾸 잊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라.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특정한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대의 오랜 습관이다. 다시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초점을 풀어라. 그저 하늘을 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하늘을 응시하라. 곧 아무것에도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늘을 볼 때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는 그대 내면의 하늘에도 이것을 시도해 보라.

주의 깊게 마음을 관찰하라.

눈을 감고 내면을 들여다보라. 특정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사념이 흘러가지만 그대는 사념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그저 무심하게 지켜볼 뿐이다. 사념이 들어와도 좋고, 들어오지 않아도 좋다. 서서히 그대는 사념들 사이의 간격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의 사념이 지나가고 다른 사념이 들어오기 전에 간격이 있다. 서서히 사념이 투명해진다. 사념이 지나가고 있을 때에도 그대는 간격을 본다. 그대는 사념의 구름 뒤에 숨은 하늘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

이런 시각에 익숙해지면 점점 사념이 줄어들고 간격이 더 넓어질 것이다. 잠시 동안 아무 사념도 들어오지 않는 순간이 온다. 모든 것이 정적에 잠긴다. 난생 처음으로 평화가 찾아온다. 모든 것이 절대적

인 지복으로 느껴지고, 아무런 동요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시각이 자연스러워지면...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 이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일 중의 하나다. 다만 모든 습관적인 패턴과 초점을 해제하면 된다.

그러면 온갖 차별이 무너지고...

이때에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아름다운 것도 없고 추한 것도 없다.

그러면 온갖 차별이 무너지고

깨달음에 도달하리라.

깨달음(buddhahood)은 각성의 가장 높은 경지다. 아무런 차별도 없을 때, 구별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통합되었을 때, 이때 오직 하나만이 남는다. 이것을 '하나'라고 말하는 것도 안 된다. 하나 또한 이원성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하나가 남지만 그것을 '하나'라고 말할 수가 없다. 깊은 곳에서 '둘'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를 말할 수 있는가? 하나가 남는다고 말하지 말라. 다만 '둘'이 사라졌다고 말하라. 다수(多數)가 사라졌을 뿐이다. 이것은 거대한 하나됨(oneness)이다. 모든 경계가 허물어진다.

하나의 나무가 다른 나무와 합쳐지고, 땅이 나무와 합쳐지고, 나무가 하늘과 합쳐지고, 하늘은 저 너머의 것과 합쳐지고... 그대는 내 안으로 녹아들고, 나는 그대 안으로 녹아든다. 모든 것이 융해된다. 모든 구별이 사라진다. 물결이 다른 물결을 덮치듯이 모든 것이 하나로 융해된다. 거대한 하나 이 생생하게 진동한다. 경계선도 없고, 한계도

없고, 차별도 없다. 성자가 죄인 안으로 용해되고, 죄인이 성자 안으로 용해된다.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된다. 밤이 낮이 되고, 낮은 밤이 된다. 삶은 죽음이 되고, 죽음은 다시 삶을 만들어 낸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

이 순간에 깨달음이 온다. 선도 없고 악도 없을 때, 죄도 없고 덕도 없을 때, 밤도 없고 낮도 없을 때... 모든 차별이 사라진 순간에 깨달음이 온다.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그대의 눈이 그런 식으로 훈련되었기 때문이다. 차별은 배워서 얻은 것이다. 존재계에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차별은 그대의 투영이다. 그대가 만들어낸 것이다. 차별은 그대 눈의 속임수다. 그대의 눈이 그대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끝) 

- 이 글은 「탄트라, 더없는 깨달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오쇼(Osho Rajneesh)** | 오쇼의 가르침은 어떠한 틀로도 규정하기 힘들 만큼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의 강의는 삶의 의미를 묻는 개인적인 문제에서부터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시급한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주제를 망라한다. 런던의 「선데이 타임스(Sunday Times)」는 20세기를 빛낸 천 명의 위인들 중 한 사람으로 오쇼를 선정했으며, 미국의 작가 탐 로빈스(Tom Robbins)는 오쇼를 '예수 이후로 가장 위험한 인물'로 평가기도 했다. 인도의 「선데이 미드 데이(Sunday Mid-Day)」는 인도의 운명을 바꾼 열 명의 인물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는 간디, 네루, 붓다 등의 인물과 더불어 오쇼가 포함되어 있었다. 오쇼는 자신의 일에 대해 새로운 인간이 탄생하도록 기반을 닦는 것이라고 했으며, 점점 가속화되는 현대인들의 생활환경에 맞는 명상법을 도입하여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데 혁명적인 공헌을 하였다.

역자 | **손민규** | 1962년 생. 인도로 건너가 오쇼의 제자로 입문한 후 20여 년 동안 인도를 오가며 여러 스승들을 만나 교류했다. 특히 '유지 크리슈나무르티'와의 만남을 통해 큰 감화를 받았으며, 오쇼 문헌에서 가장 먼저 깨달은 인물이 알려진 '끼란지'와 12년 동안 친교를 나누며 깊은 가르침을 받았다. 지난 20년 동안 명상서적 전문번역가로 일하면서 「명상,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 「법구경」, 「금강경」 「떠도는 자의 노래」, 「마음을 버려라」 등을 포함한 50여 권의 명상서적을 한국어 번역·소개했다. 현재 오쇼와 끼란지의 가르침에 대해 공부하는 수행모임 '오스카'를 이끌고 있다.

## 탄트라, 더없는 깨달음 언어와 상징을 초월하는 마하무드라의 노래

저자 오쇼 | 역자 손민규 | 출판사 태일 | 정가 15,000원



‘예수 이후로 가장 위험한 인물’로 평해지는 오쇼의 삶의 의미를 묻는 개인적 문제는 물론,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시급한 정치·사회적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를 망라한 강의를 모은 「21세기를 사는 지혜의 서」 제9권 『탄트라, 더없는 깨달음』. 언어와 상징을 초월하는 마하무드라의 노래 〈탄트라〉에 대한 오쇼의 강의를 담아낸 것이다. 최고의 이해는 이것과 저것을 모두 초월한다. 최고의 행동에는 애착 없는 위대한 창조성이 깃들여 있다. 최고의 완성은 아무 희망 없이 내재성을 깨닫는 것이다. 첫 단계에서 구도자는 마음이 폭포처럼 곤두박질치는 것을 느끼리라. 중간 단계에서 마음은 갠지스 강물처럼 유연하고 고요하게 흐른다. 마지막 단계에서 마음은 거대한 바다가 된다.